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바라며

권 윤 수 | 강남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장

학부모의 기대

우선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승격된 것에 대하여 학부모를 대표하여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중앙 정부 부처 중 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노동 등의 인적 자원 개발 분야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 부처가 없어 관련 업무가 교육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련한 업무의 조정과 총괄이 미흡하여 관련 업무가 상당 부분 중첩되거나 사각 지대가 생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을 수립·추진하지 못했는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계기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 자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

첫째, 우리 나라 청년들의 입직(入職) 시기가 선진국에 비하여 적어도 3~4년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낭비를 해소해 주었으면 합니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라는 특수 사정도 있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입직하지 못하고 몇 년씩 취업 준비를 하는 현실은 참으로 인적 자원 관리의 비효율성의 대표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산업 현장 등 취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현장 적응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

둘째, 우수 인력의 특정 학교 또는 특정 분야 편중을 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소위 명문 대학·명문 학과에 편중 입학하는 문제, 사회·경제적으로 인기가 많은 몇몇 분야 특히 의학과 법학 분야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어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부처간 이기주의 극복

셋째,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데 강력한 지

“

학교 교육을 다시 튼튼하게 바로 세우는 데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풍토와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A라는 부서가 해 오던 것이니까 B부서가 맡으면 안되고, 저 일은 C부서에서 맡아 왔으니까 D부서가 맡으면 안된다는 식의 밥그릇 싸움을 해소하여 유사한 업무들의 통·폐합도 과감히 추진하는 등 말 그대로 인적 자원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명실상부한 기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 교육의 기반 강화

넷째,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학교 경영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교원·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중등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초·중등학교에서 창의력 교육이나 인성 교육의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만 후에 대학에 가서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실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폐해진 오늘날 학교 교육에 대하여 학부모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선 학부모들이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을 반성해야겠지만 교육 행정 당국의 안정적 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에도 문제

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데에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무너진 학교 교육을 다시 튼튼하게 바로 세우는 데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풍토와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부모들은 정신 차릴 수 없이 바뀌는 교육 정책,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현안 문제 해소에만 급급한 대증요법식 정책 추진, 1년도 못채우는 장관 재임기간,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 현장, 그로 인해 학부모가 천문학적 숫자의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고통으로 차라리 아이 교육을 위해 이민을 가든가 조기 유학을 시켜야 되겠다는 절망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깊이 헤아려 설득력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윤수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시사통신, 연합통신 기자를 지내고, 현재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영위원, 강남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장, 신민화 패션 대표로 활동 중이다.